

8월의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1. DCEM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어, 마르지 않는 샘솟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2. 자연의 재해와 어려움을 인간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울러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들을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3.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을 수 없고, 수고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잊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8월에도 뿌린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마음에 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4.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영속할 때, “모든 겹손과 운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 하신 말씀을 항상 생각하게 하소서. 서로가 사랑하며 용납하고 겹손과 운유와 오래 참음으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되어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위로하시는 성령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18)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삶에 쫓기며 실망하였을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나 다정한 친구의 한마디 위로를 통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로 부터 받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미치지 못하는 구멍덩이에 빠지거나 큰 절망에 처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될 것을 염려하시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위로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 14:16)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위로자가 되어서 죄에 짓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마귀의 공격을 받아 절망과 슬픔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축복과 구원의 은혜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과 담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고독이나 슬픔이나 절망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무더기 속에 파묻혀 죽으면서도 그렇게 위대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원수들에게 복을 빌어 줄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위로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위리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상처받은 마음을 움켜쥐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나아가 이웃을 위로하도록 힘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이는 오직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ugust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2년 해외성회

<일본 성회>



① 2002 동경 지저스 페스티벌 전경 ②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조용기 목사와 동역의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 ③ 히비야공회당을 가득 채운 일본 성도들 ④ DCEM 아시아지역본부 조찬기도회 때 기도하는 일본 선교사들

전세계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 일본. 그러한 일본 땅에 40년 전 조용기 목사가 뿌린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복음의 씨앗은 현재 90여개 교회로 자라났다. 일본 복음화 성장의 배경에는 매해 개최했던 ‘지저스 페스티벌’이 있다. 당월호에서는 2002년 10월 도쿄에서 개최한 “2002 지저스 페스티벌”을 회고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조용기 목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와 유럽, 미국을 거쳐 아시아로 왔다”며 “아시아인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기 위해 먼저 일본의 복음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미국과 일본의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불안과 염려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사는 이어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과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교회가 연대해야 한다”며 일본 성도들의 기도운동을 당부했다.

아 밀라노에서 바리톤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준씨가 자비량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저스 페스티벌’은 1996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 도쿄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듬해 7월과 10월 일본 리바이벌동맹에서도 참여해 오사카와 도쿄에서 두 차례 열리면서 일본 열도를 뒤흔드는 성령운동의 열기로 확산됐다. 이어 ‘지저스 페스티벌’은 1000만 일본인 구령운동으로 전개되면서 1998년 일본 간사이지방의 중심인 후쿠오카에서 열렸으며 2000년 나고야에서 개최됐다. 이날 히비야공회당에서 열린 지저스 페스티벌은 5년만에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다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펜타코스트 성령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 이어 전 일본에 성령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2년 10월 14일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있는 히비야공회당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개최된 ‘지저스 페스티벌’ 성회는 회개와 능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 일본 복음화의 새 장을 열었다. 재일동포와 일본인 성도 및 일반인 3000여명이 참석한 성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기쁨과 만족’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번이나 남편을 얻었음에도 만족함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얻었다”며 “부와 권력과 명예의 흙탕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수인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가 열린 히비야공회당은 2200명을 수용하는 회관으로 성회에는 일본의 주요 교단 목회자와 일본인, 재일동포 성도 등 교파를 초월해 3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줄을 서기 다렸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다. 특히 이날 성회에서는 김성혜 총장이 피아노 연주를 했으며 이탈리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사야서를 가지고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바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1.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영혼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육체가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자, 죄우간 어떤 모양이든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어서 더 이상 가난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사셨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난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을 다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2.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완전히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살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한에 꽂혀 있어서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육체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 묶이고 영과 혼과 육이 생활과 함께 마귀에게 다 포로로 잡혀서 마귀가 그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그 마귀의 억압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는 사람의

예수님의 메시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19절)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어 오시면, 순식간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순식간에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오늘날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위대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3.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께서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눈 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믿고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4.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육 간에 마귀에게 눌리면 병이 들게 됩니다. 마귀는 따라다니고 올라타고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마귀에게 눌린 자는 자유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지만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을 알고 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좋은 행실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값없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대신하여 당하신 고통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 사람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다 찾아주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과 영생과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사회적, 국가적, 우주적 차원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구원이란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누리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와 불의에서 해방되어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어 치료와 건강을 얻게 됩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게 됩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기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산의 신학과 목회

- 꿈과 상상력 -

‘꿈과 상상력’은 4차원의 영적세계에 속한 것으로서 3차원의 물질세계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며 성령의 영적 언어이다. 성령께서는 꿈과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꿈꾸고 상상하게 만드신다. 다시 말해서, 꿈과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소통하시는 통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객관적인 서술 형식으로 전달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인간의 꿈과 상상력을 사용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신다. 성경에는 꿈과 상상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꿈과 상상력의 방법을 사용하셨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의 기업에 대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꿈과 상상력이 믿음을 통해 나타날 때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꿈과 상상력을 통해 요셉에게 그의 미래에 나타날 그의 삶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 되었고 그 꿈을 생생하게 상상함으로써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야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가지고 메시아적 이상을 현실에 이루어 질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메시아적 예언

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꿈과 상상력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는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는 대화의 통로이다.

기독교 영성 수련자들은 꿈과 상상력을 통하여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의 기록이 보다 생생한 사건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상상력을 통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는 죽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서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이해하였다. 기독교 영성 수련자들은 상상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애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감적으로 만나고 그 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단계에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과 구원 그리고 기적들은 우리의 꿈과 상상력을 통하여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날 수 있다. 성경은 성령의 언어로서 꿈과 상상력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꿈과 상상력을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은 잠언 29장 18절을 통하여 “목사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4차원의 영적세계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꿈과 상상력을 가지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영적언어인 꿈과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리차드 바스터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상상력을 활용하여 읽도록 권고하였다. 영산 조용기 목사(이하 영산)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을 자신의 상상력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였다. “나는 아브라함이 별을 세다가 감동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 둘 별을 세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어느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영산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언어인 꿈과 비전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신도 꿈을 꾸고 생생하게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산은 성령께서 주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꿈과 상상력을 가지고 타락한 3차원의 물질세계를 삼중축복의 세계로 변화시켰다. “사람의 미래는 그가 어떤 꿈을 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원리를 계속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꿈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적 언어인 꿈과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2024년도 삿포로신학교 신학생 모집 [2년제]

일본 선교의 최전선에서 헌신할 제3기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졸업후 각자의 적성과 진로희망에 따라 일본 선교를 이끌 지도자, 교회 개척자로 활약 할 길이 제공됩니다. 일본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일본 선교를 향한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자
- 일본어능력시험 N4레벨이상 소지자 또는 입학전 동 레벨을 취득할 의지가 있는 자
- 4년제 대학교(전공 무관)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 국적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연령제한 : 45세 이하

■ 접수마감일

2023년 7월 31일(월)

■ 전형방법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대면 또는 화상면접

*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sapporobible.college.kr)

■ 등록금

180만엔/년 (기숙사, 식사비 일체 포함)

*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추천하여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입학문의 Tel. 02-6181-6572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 Tel. 02-6181-5061 (DCEM)



SAPPORO BIBLE COLLEGE 삿포로신학교 17 Chome-3-11, Minami 8 Jonishi, Chuo-ku, Sapporo, Hokkaido, JAPAN

